신앙감정론과 관련 있는 편지 모음(길레스피와의 왕복 서신)

편지 · 편지 4: 에드워즈가 길레스피에게 (1750. 4. 2)

『신앙감정론』 부록 '신앙감정론과 관련 있는 편지 모음(길레스피와의 왕복 서신)' 중 편지 4, 인쇄 692~708쪽 (1750년 7월 3일 추신 포함)

🧭 흐름 한눈에

에드워즈는 성찬 참여 자격 논쟁에 휘말린 사정을 밝히며 늦은 답장을 사과합니다. 그다음 스코틀랜드 목사 길레스피와의 쟁점을 하나씩 다룹니다. 먼저 “영적 빛이 없어도 믿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다만 육적인 상태에서 '강한 확신'을 의무로 요구한 미국의 가르침은 해롭다고 선을 긋습니다. 이어 그의 중심 논증이 나옵니다.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만, “내가 믿는다”는 내 의식에 근거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구원에 대한 확신은 구원 얻는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 그 열매입니다. 끝으로 요나, 호세아 2장, 예레미야 3장을 다시 읽으며 하나님의 순서를 밝힙니다. 하나님은 해이해진 성도에게 확신을 먼저 주지 않으십니다. 먼저 깨우고 낮추신 뒤에 위로하십니다. 편지는 우울과 유혹에 시달리는 이들을 위한 실제 조언과, 목회지에서 해임되었다는 추신으로 끝납니다.

🪪 표지 카드

(표지 장 아님)

📜 절별 정리

📜 1. 늦은 답장과 성찬 논쟁

에드워즈는 길레스피의 1748년 9월 19일자 편지를 늦게 받았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다른 편지들에 답장을 다 보낸 뒤에야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는 큰일이 생겨 답장을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려는 사람이 해야 하는 신앙고백 문제로 회중과 논쟁이 벌어졌고, 그 논쟁이 뉴잉글랜드 대부분의 교회와의 논쟁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이 일이 그의 마음과 시간을 모두 빼앗았기에, 그는 동지들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어서 길레스피와 자신의 차이가 실제보다 크게 느껴지는 것은 서로를 오해했기 때문이라고 아쉬워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부분은 정말로 크게 다르다고 인정합니다.

1. 성찬 참여 자격 논쟁으로 답장이 늦음
2. 논쟁이 뉴잉글랜드 교회 전체로 번짐
3. 시련 속에서 동지들에게 기도를 부탁함
4. 차이의 일부는 말을 오해한 데서 생김
5. 그러나 실제로 큰 차이도 있다고 밝힘

> **(인용 구절 없음)**
> 편지의 정황을 설명하는 도입부

📜 2. 영적 빛 없이도 믿어야 하나?

에드워즈는 길레스피의 말에 그대로 동의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증거를 믿고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합니다. 영적 빛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능력이 모자란다고 의무의 기준이 바뀌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둠이나 영적 무지도, 바울 같은 강한 믿음과 사랑이 없는 것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미국에서 어떤 이들이 이 말을 쓴 방식입니다. 그들은 영적 빛이 전혀 없고 육적이고 부주의하고 분별없는 상태에서도 '강한 확신'을 품는 것이 의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맹목적이고 교만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악하게 행동하면서 진리와 살아 있는 믿음이라는 대의에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해악을 끼쳤다고 에드워즈는 말합니다.

1. 영적 빛이 없어도 믿을 의무는 그대로다

3. 어둠이 약한 믿음의 핑계가 될 수 없다
4. 그러나 '어둠 속 강한 확신'을 강요하면 해롭다
5. 그런 가르침이 교만한 확신자를 낳았다

> **(인용 구절 없음)**
> 미국 부흥기에 나타난 실제 결과를 근거로 논증함

📜 3. 내가 구원받았다는 믿음은 믿음의 본질인가 — 삼단논법

에드워즈는 성도의 소망을 삼단논법으로 풉니다. 삼단논법은 큰 원리(대전제)와 개별 사실(소전제)을 합쳐 결론을 내는 추론 방식입니다. 대전제는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므로, 이것에 동의하는 일은 믿음의 본질에 속합니다. 소전제는 “나는 믿는다”입니다. 이것은 말씀이 아니라 내 의식과 느낌에 근거하므로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명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노샘프턴의 아무개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명제는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아내와 자녀에게서 위로를 얻는다는 것을 아는 방식과 똑같이 압니다. 결론인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씀에 근거하므로 믿음의 본질에 속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 믿음이 진짜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성경입니다. 하지만 그 작용이 내 안에 지금 있는지는 의식으로, 예전에 있었는지는 기억으로 압니다.

1. 대전제는 말씀에 근거하므로 믿음의 본질이다
2. 소전제 '나는 믿는다'는 내 의식에 근거한다
3. '내가 주를 사랑한다'는 복음의 명제가 아니다
4. 결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믿음이다
5. 지금은 의식으로, 과거는 기억으로 안다

> **로마서 10:17**
> 믿음의 토대는 말씀이며, 말씀에 없는 '나는 믿는다'는 믿음의 대상이 아님을 보여 줌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는 명제가 아닙니다."

📜 4.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

에드워즈는 성경의 예로 앞의 구분을 보여 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종에게 표시를 주셨습니다. 물을 길으러 와서 종과 낙타들에게 물을 주는 처녀가 이삭의 아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에 동의한 것은 하나님의 증거에 근거하므로 믿음입니다. 하지만 "리브가가 바로 그 처녀다"라고 안 것은 신적 증거가 아니라 종 자신이 보고 느낀 데서 왔습니다. 약속을 믿는 것과, 약속의 조건이 눈앞의 사람에게 맞는다고 판단하는 것은 서로 다른 앎입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를 믿는 것과 "내가 그 믿는 자다"라고 아는 것도 다릅니다.

1. 처녀에 대한 약속을 믿은 것은 믿음이다
2. '리브가가 그 처녀다'는 자기 관찰로 안 것이다
3. 약속을 믿는 일과 조건을 확인하는 일은 다르다

> **창세기 24장**
>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그 약속이 누구에게 해당하는지 아는 자기 판단을 구분하는 예
>
> [1]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2]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으라 [3]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4]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5]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6]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

📜 5. 순서의 논리: 확신은 믿음의 일부가 아니라 열매

길레스피는 성도가 자기 구원을 의심하는 것이 불신앙의 한 요소이고, 확신하는 것이 곧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드워즈는 정중하게 반대합니다. 이유는 순서입니다. 사람을 구원받은 상태에 두는 것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먼저 온전히 있어야 “나는 구원받았다”가 참이 됩니다. 만약 “나는 구원받았다고 믿는다”가 믿음의 필수 요소라면, 구원받기도 전에 구원받았다고 믿어야 한다는 모순이 생깁니다. 복음의 명제들은 이미 참이어서 믿음의 토대가 됩니다. 하지만 “내가 구원받았다”는 내가 믿은 뒤에야 참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의 충분하심과 신실하심을 강하게 붙잡더라도, 자기 구원은 아직 믿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에드워즈는 의심이 불신앙의 '결과'일 수는 있다고 인정합니다. 믿음이 온전히 발휘되면 구원받은 것을 쉽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내 안에 은혜가 있나?”를 의심하는 것은 불신앙의 죄 자체가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으면서 생명의 면류관 약속을 의심한다면, 그것은 말씀을 의심하는 불신앙의 죄입니다.

1. 믿음이 먼저 있어야 '구원받았다'가 참이 된다
2. 확신을 믿음의 조건으로 삼으면 모순이 생긴다
3. 강한 믿음에도 자기 구원 확신은 없을 수 있다
4. 의심은 불신앙의 결과일 수 있으나 본질은 아니다
5. 약속 자체를 의심하는 것은 불신앙의 죄다

> **로마서 10:17**
> (3절과 이어지는 근거) 복음의 명제들만 이미 참인 믿음의 토대라는 전제
>
>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 **(그 외 인용 구절 없음)**
> 이 절은 순서의 논리로 논증함

“내가 구원받았다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결과이지 그것의 일부분이나 한 가지나 요소가 아닙니다.”

📜 6. "성령의 일을 있는 그대로 믿으라"에 대한 답 — 의심과 죄의 관계

길레스피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신 일을 있는 그대로 믿으라고 요구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사역'을 의심하는 것과 하나님의 '증거'를 부인하는 것은 다르다고 답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뛰어난 재능을 주셨는데 그가 자기 재능을 의심한다고 합시다. 그것이 잘못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불신앙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확신이 없는 것이 아무 문제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참된 성도가 육적이고 부주의한 삶에 빠져 확신을 잃었다면, 그것은 간접적으로 그의 죄입니다. 종이 부주의해서 연장을 잃거나, 무절제해서 시력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연약함 자체가 죄라기보다 그 원인이 죄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의 얼굴빛을 즐거워하지 못한 것은 그의 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실 때는 즐거워하는 것보다 괴로워하고 애통하는 것이 오히려 어울립니다. 확신은 이렇게 '간접적으로만 의무인 특권'에 속합니다.

1. 사역을 의심함과 증거를 부인함은 다르다
2. 재능을 의심해도 하나님을 거짓되게 하진 않는다
3. 육적 삶 탓에 확신을 잃은 것은 죄다
4. 연장 잃은 종처럼 원인이 죄라는 뜻이다
5. 하나님이 숨으실 땐 애통함이 마땅하다

> **사무엘하 11장 (에드워즈가 장절 없이 언급한 사건)**
> 다윗이 죄짓는 순간 기쁨을 잃은 것은 그 자신의 죄라는 예
>
> **사무엘하 11장** [1]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3]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이까 하니 [4]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5]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6]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헷 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

> **(그 외 인용 구절 없음)**
> 연장 잃은 종, 시력 잃은 종의 비유로 논증함

📜 7. 회복은 믿음에서 시작하지만, 육적 삶 속 '강한 소망'은 거짓

에드워즈는 자신이 “악한 삶에서 빠져나오는 일이 믿음의 회복으로 시작되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해명합니다. 잠든 은혜에서 깨어나려면 반드시 은혜가 새로 작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 느껴지게 새로워지는 은혜는 믿음이며, 이 믿음이 다른 은혜들을 이끈다고 봅니다. 하지만 두 가지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는 은혜가 새로워져 육적인 삶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여전히 육적이고 영적으로 죽은 삶을 살면서 강한 믿음이나 소망을 경험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소망'은 성령이 주시는 은혜이고, 오직 그것만 의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욕과 어리석음에 계속 지배받는 사람에게 담대한 소망을 붙들라고 권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것은 거룩하지 않은 소망을 권하는 일이고, 주제넘은 큰 죄이며, 수많은 영혼을 그르친 방법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1. 회복은 반드시 은혜의 새 작용으로 시작한다
2. 처음 새로워지는 은혜는 믿음이다
3. 육적 삶 속 '강한 소망'은 말이 안 된다
4. 의무인 소망은 거룩한 소망뿐이다
5. 죄에 머문 이에게 확신을 권함은 큰 죄다

> “성경은 거룩한 소망을 성령의 은혜로 말한다”는 일반 진술로 논증함

📜 8. 하나님은 먼저 확신을 주시나, 먼저 깨우시나 — 요나

길레스피는 편지 6~7쪽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은 해이한 성도에게 먼저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그 확신을 통해 그를 해이함에서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에드워즈는 성경과 경험으로 볼 때 반대라고 답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양심을 깨우십니다. 그래서 자기 삶을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불러온 재난을 느끼게 하십니다. 그 뒤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평안히 느끼는 감각을 회복시키십니다. 길레스피는 요나가 배 밑층에서 잠든 해이한 상태에서 확신의 말을 했다고 보았습니다. 에드워즈는 요나가 그 말을 한 장소가 물고기 뱃속이었다는 점을 짚습니다. 그때 요나는 폭풍이 자기 죄에 대한 진노라고 자백했고, 스올의 뱃속 같은 절망을 겪었고, 영혼이 피곤해진 뒤였습니다. 그러니 그는 더 이상 부주의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먼저 깨닫고 절망한 뒤에야 위로를 받았습니다.

1. 하나님은 먼저 양심을 깨우신다
2. 재난을 느끼게 하신 뒤 찾게 하신다
3. 그 후에 은총의 감각을 회복시키신다
4. 요나의 고백은 물고기 뱃속의 절망 이후다
5. 깨달음과 절망이 위로보다 먼저였다

> **요나 2:4**
> 길레스피가 확신의 증거로 든 구절. 에드워즈는 이 말이 절망을 겪은 뒤에 나왔음을 지적함
>
>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 **요나 2:7**
> “영혼이 피곤할 때 여호와를 생각하였다” — 깨어진 뒤에 기도가 주께 이르렀음을 보여 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 1장 (배 밑층의 잠, 폭풍, 자백 — 에드워즈가 장절 없이 요약한 장면)

부주의함 → 각성 → 고백의 순서를 보여 줌

요나 1장 [1]여호와의 말씀이 아밋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3]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삯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4]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5]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6]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

📜 9. 이스라엘의 회복 — 호세아 2장, 예레미야 3장과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경우도 같다고 에드워즈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배역한 백성을 사랑으로 위로하시기 전에 먼저 엄한 책망과 성령의 각성으로 깨우셨습니다. 호세아 2장에서 하나님은 가시로 길을 막고, 곡식과 포도주를 빼앗고, 모든 즐거움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차리게 하신 뒤 광야로 데려가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소망의 문을 여셨습니다. 탕자가 제정신이 든 것과 같습니다. 예레미야 3장은 하나님이 이혼서까지 준 배역한 이스라엘을 다룹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는 여전히 내 아내다”라는 확신을 먼저 주어 회복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14절의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는 히브리어로 완료형입니다. 하지만 예언에서 이 시제는 종종 미래의 일을 말합니다. 19절의 “나의 아버지”와 로마서 8:15의 부르짖음은 분명 믿음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뜻에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살아 있는 믿음에서

비유를 듭니다. 적에게 쫓기는 사람은 가장 튼튼한 요새로 달려가며 “이것이 나의 피난처다”라고 외칩니다. 아직 안에 들어가지 않았어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 구혼자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람을 고른 여인도 결혼 전에 “이 사람이 내 남편감이다”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입니다”는 “나는 이미 자녀다”라는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택해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21~23절에서도 이스라엘은 먼저 죄와 비참을 깨닫고, 다른 피난처가 헛됨을 알고, 울며 자비를 구합니다.

1. 하나님은 책망과 각성 뒤에 위로하신다
2. 호세아 2장: 길을 막고 빼앗은 뒤 소망의 문
3. 예레미야 3장은 이혼당한 배역자의 이야기다
4. '나의 아버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고백이다
5. 요새·구혼 비유: 이미 들어섰다는 뜻이 아니다

> **호세아 2장**
> 하나님이 먼저 빼앗고 막아 깨우신 뒤 위로하시는 순서의 대표 사례
>
> 1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2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3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 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 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4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5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삼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6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

> **예레미야 3:8**
> 이스라엘이 이혼서를 받은 상태였으므로 “여전히 아내다”라는 확신이 출발점일 수 없음
>
>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예레미야 3:14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 예언적 완료형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회복을 가리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예레미야 3:19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택해 나아가는 믿음 행위의 언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네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예레미야 3:21-23

자비를 구하는 울음이 확신보다 먼저 옴

21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22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23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로마서 8:15

"아빠 아버지"도 같은 믿음의 언어임을 인정함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호세아 5:15 / 호세아 6:1-3

하나님이 백성이 죄를 뉘우치고 구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순서를 보여 주는 보강 구절

레위기 26:40-42 / 열왕기상 8:47-51

> 죄를 자복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보강 구절

📜 10. 욥, 그리고 유혹과 우울에 시달리는 사람들

에드워즈는 욥에 대해 짧게 답합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 연약하고 조급했지만 방심하거나 육적인 삶에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길레스피의 주장에 맞는 예가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에드워즈는 분명히 덧붙입니다. 성도의 소망과 자기 구원을 아는 것은 유혹과 부패를 이기는 데 큰 도움이 되며, 자신은 이것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길레스피가 물은 사탄의 특별한 공격과 우울증, 몸의 질병이 겹친 경우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답합니다. 자기가 상담하기에 부족하고, 이런 상태는 사탄에게 유리한 고지를 내준다고 인정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그리스도인 친구들이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이 사랑의 실천이고 가장 희망 있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경험으로는 조언 내용보다 그 조언을 받아들이게 설득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조언은 이것입니다. 사탄의 위협이나 거짓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대한 의무, 가정, 우정, 이웃, 일과 쉼, 집중과 여가의 의무를 질서 있게, 균형 있게, 때에 맞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좌절하고, 건강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도움과 복을 얻게 된다고 그는 말합니다.

1. 욥은 연약했지만 방심한 삶은 아니었다
2. 소망과 확신은 유혹을 이기는 큰 도움이다
3. 우울·질병은 사탄에게 틈을 준다
4. 친구들의 기도와 금식이 사랑의 실천이다
5. 일상 의무를 질서 있게 지키는 것이 방패다

> **(구체 장절 인용 없음)**
> 욥의 사례를 장절 없이 언급함. 상담 조언은 목회 경험에 근거함

📜 11. 맺음말과 추신 — 해임과 기도 부탁

에드워즈는 길레스피가 쓴 '직통 계시'(성경 밖에서 하나님께 직접 받는다는 계시) 문제는 편지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 다루지 못한다고 양해를 구합니다. 그는 자기 앞날을 모릅니다. 열 자녀를 포함한 대가족과 함께 넓은 세상에 던져질 처지라며 기도를 부탁합니다. 뉴잉글랜드의 영적 상태는 매우 어둡다고 말하고, 자세한 내용은 글래스고의 맥로린 목사와 로브 목사에게 보낸 편지를 보라고 합니다. 1750년 7월 3일 추신에서 그는 결과를 알립니다. 위원회가 다수결로 즉시 분리를 결정했고, 그의 목회는 6월 22일자로 끝났습니다. 그는 자신과 회중이 한때 큰 연합을 누렸던 것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이 분열을 하나님의 책망으로 바르게 받아들이게 해 달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 일이 자신이 더 거룩해지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가족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도록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1. 직통 계시 문제는 지면상 다루지 않음
2. 열 자녀와 함께 앞날이 불확실함
3. 뉴잉글랜드의 영적 상태는 어둡다
4. 1750년 6월 22일 목회가 끝남
5. 분열을 하나님의 책망으로 받으려 함

> **(인용 구절 없음)**
> 개인적 정황과 기도 부탁

⚖️ 오해와 반론

📖 용어

믿음의 본질
그것이 없으면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핵심 요소.

삼단논법(대전제·소전제·결론)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 나는 믿는다 /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는다”처럼 원리와 개별 사실을 합쳐 결론을 내는 추론.

내가 지금 구원받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아는 만족감. 에드워즈에 따르면 믿음의 열매다.

불신앙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거짓으로 여기는 죄. 자기 안의 은혜를 의심하는 것과는 구별된다.

영적인 빛(시각)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참된 깨달음과 봄.

은혜의 작용
믿음·사랑·소망 같은 은혜가 실제로 마음에서 움직이는 것.

거룩한 소망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서의 소망. 죄 가운데 머물며 품는 '담대한 소망'과 다르다.

육적이고 부주의한 삶
신앙은 있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잠들어 육욕과 어리석음에 지배받는 상태.

직통 계시
성경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메시지를 받는다는 주장.

성찬 참여 자격 논쟁
성찬에 참여하려는 사람이 해야 하는 신앙고백의 내용을 두고 에드워즈와 회중 사이에 벌어진 다툼.

⚖️ 거짓과 참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자기 구원에 대한 확신은 구원 얻는 믿음의 일부가 아니라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확신이 없는 것이 곧 불신앙의 죄는 아닙니다. 다만 죄 때문에 확신을 잃었다면 간접적으로 자기 잘못입니다.
- 육적이고 부주의한 상태에서 강한 확신을 의무로 요구하는 가르침은 해롭습니다. 의무라 부를 수 있는 소망은 거룩한 소망뿐입니다.
- 하나님은 해이해진 백성을 먼저 깨우고 낮추신 뒤 위로하십니다. 요나, 호세아 2장, 예레미야 3장이 이를 보여 줍니다.
- 그렇다고 확신이 하찮은 것은 아닙니다. 확신은 유혹을 이기는 큰 도움이고, 시련 속에서는 일상의 의무와 서로를 위한 기도가 힘이 됩니다.

🎬 이 장을 쓰는 편

- 신앙감정론 25편 · 사탄도 흉내 내지 못하는 것 · 길레스피에게 보낸 편지와 내 신앙 점검표 (준비 중)

빛다방 학습 노트 · 조나단 에드워즈 『신앙감정론』(부흥과개혁사, 정성욱 역)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표지 카드 문장은 1746년 영문 원문(공유 저작물)에서 새로 옮겼습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